

|  |   |  |
|--|---|--|
| <p>사할린주<br/>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br/>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br/>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 <p>2017년 4월 14일(금)<br/>..(음력 3월 18일)..<br/>Пятница<br/>14 апреля 2017 г.<br/>№ 14 (116731)<br/>1949년 6월 1일 창간<br/>-----<br/>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올해의 교사> 최종결승전 출발**

지난 1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콩쿠르의 최종 단계가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피날레에는 10개 행정구역(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쿠릴스크, 오하, 토마리, 티몹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콩쿠르의 우승자를 포함해 24명의 교사가 참가한다.

2년에서부터 33년까지 교사경험이 있는 화학·영어·기술·상담 등 교사들은 1주일간 여러 콩쿠르에서 실력을 발휘한 후 18일에는 최종 우승자와 수상자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남자 교사들 6명이 교사콩쿠르에 참여한 것은 기록적인 일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에 교사 13명(교육경험 5년이하)은 <교육데뷔>부문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사할린주교육부 나탈리아 무라쇼와 장관은 제27회 <올해의 교사>콩쿠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예식기자 촬영)

**올해 사할린주, 약 42킬로미터 도로 공사 예정**

국내에서 도로공사 속도와 도로분야에 소요된 자금을 두고 가장 선두에 선 지역은 사할린주라고 러시아연방 교통부 막심 소콜로브 장관은 7일(금) 개최된 영상회의에서 보고했다. 영상회의에는 주내 지역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도로 건설에 배당되는 자금의 운용과 예산형성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었다.

"오늘 현재 주내 지역도로망은 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60%는 요구한 바와 합치하지 않다. 자금이 부족한 탓이라고 한다.>라며 계속하여 <또한 2016년에 55개 지역들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계획도 다 실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캄차트카변강, 추코트카자치구 및 사할린주는 어려운 경제위기상황 속에서도 도로분야의 투자력을 확장시켜왔다.

사할린에서는 새 아스팔트 포장도로 60킬로미터를 개통시키고 지난 2년간 111킬로미터 도로를 보수하였다.

"올해는 약 42킬로미터 도로를 아

스팔트로 포장하고 매해 50-55킬로미터씩 도로를 건설해갈 예정이다. 올해 우리는 도로공사에 대한 대규모 설계를 강구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회의에 참가한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가 확인했다.

사할린주정부에는 오하까지의 도로공사를 마치고 지방들에서는 도로공사의 작업량을 증가시키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통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주지사는 아스팔트 도로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대식 기술공정을 널리 도입하는 데에 대해 언급하였다.

<도로공사에 거액이 투자되는 만큼 도로건설 계약자들은 도로공사의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에 사할린주 교통부의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지적했다.

영상회의 폐회 후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도로 상

태에 대한 문제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과 토론하였다.

<내가 직접 관찰도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오늘 현재 시내 도로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겨울이 지난 후 도시 중앙에도 아스팔트가 터지고 웅덩이가 많이 생겨났다. 움푹푹한 도로에서 시민들의 승용차들이 망가지는 한편, 차·도로사고가 나기 쉬운 상황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스팔트 도로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공사관계측이 도로공사의 기술공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 전문가들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다.>라고 주지사는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내 도로보수작업을 시행할 것을 시장에게 지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현재 도로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넘치고 있는 주중앙도시-시네고르스크 구간 도로보수의 과제를 도맡았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청호나이스, 2년째 코르사코브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4월 14일(금) 사할린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익히기에서 우수 실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청호나이스의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된다. 이를 위해 13일(목) 사할린을 청호나이스 이석호 대표이사 비롯 총 4명이 방문했다.

김길수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 한국어교사에 따르면 이번에 제4중학교와 제2중학교 학생 13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현재 청호나이스는 작년에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할린주, <극동 핵타르> 인프라구축 보장**

러시아연방 정부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구 대통령전권대표의 주장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는 사할린주에서 <극동 핵타르> 극동토지무상 배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분된 토지에는 필요한 제반시설구축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국내 전체 지역정부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오늘 현재 러시아 극동에서 <극동 핵타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지를 무상배분을 받으려는 신청서는 약 8만 건 접수되었다. 신청서는 매일 접수되고 있으며

사할린주에서는 9000여 명이 <극동 핵타르>극동 토지의 배분을 받으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중 2500명은 극동 토지무상배분에 대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사할린주정부, 교통분야 발전에 배당된 자금 통제**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섬 교통분야 발전에 배당된 예산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주식회사는 공항 제반시설구축 대상의 종합개발단지 투자 기획의 실행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2014-2016년간 본 주식회사의 공인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예산에서 70억5천만 루블리가 지급되어 그중 1억5천만 루블리는 주중앙도시 공항수하물터미널 건설공사에 투자했다. 이 대상은 2015년 5월에 완공되어 실용화되었고 남은 예산 69억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새 공항단지 설계 및 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3층으로 세워질 새 공항건물의 총 면적은 4만km<sup>2</sup>로 국내선 승객 최대 550명, 국제선은 최대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항종합단지로서 건물 총면적의 15%에는 카페, 상점, 휴게실, 어린이 놀이방 등이 들어서고 설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한 조건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새 공항종합단지 건설공사 기공식은 2017년 5-6월로 계획되어 있고 건설공사는 27개월간 진행할 전망이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건설회사에 배당된 주예산 자금 운용을 철저히 엄격하게 통제·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할린 소개 세션에 초대**

4월 26일(수) 사할린주경제개발부의 후원 아래 개최되는 제1회 사할린소개 세션에 <스콜코워>펀드와 ODS GROUP 투자회사가 기업인-혁신자, 발명자, 중소기업인 등을 초대한다. 세션 참가자들 앞에서 <스콜코워>펀드 대표들이 혁신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할 전망이다.

사할린주한인회 운영위 회의에서

박순옥 회장, 1/4 분기에 해놓은 일이 많다  
동포 1세 진료사업 실시, 문화센터 수리시작, 주정부 지원금 따내

지난 8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1/4분기의 사업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보고를 한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회장은 1/4분기에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첫째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적 새해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1월에는 KIN(지구촌동포연)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한인 1세들을 위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을 일부 지방에서 직접 배포했다. 달력 나누기 활동은 본격적으로 주한인회가 맡아 진행하여 주한인회 사무실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달력을 나눌 때 주이산가족협회가 작성한 1세 명단에 기입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새로 발견되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인 1세 명부에는 566명이 올라 있다고 한다.

1월 14일 사할린 한인 1세 22명과 그들의 보호자 14명이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인요한)이 실시하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프로젝트로 한국으로 떠났다. 많은 어르신들이 는 수술을 받았고 3가지 수술은 좀 어려운 수술이었다. 심장수술, 간장수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수술은 위암수술이었다. 박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꼭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다. 한국에서 암진단을 받은 분이 보호자 없이 한국에 갔더니 어르신들을 직접 인솔한 박 회장이 급히 수술에 대한 결정은 내려야 했다. 수술에 대한 결정은 가족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 차 박 회장은 국제보건 의료 재 단 인 용 한 총 재 를 만나 제2차 어르신들이 될 수 있는 데로 신속하게 한국에서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9월에 계획하던 검진은 5월로 앞당겨졌다. 사할린 어르신들은 제2차로 5월 13일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처음 진단, 진료를 받을 어르신들은 30명이고 여기에 더하여 재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은 3명, 전체 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은 233명이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박 회장은 명단 순서대로만 어르신들을 한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방문을 앞둔 설명회는 4월 19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18일 한국에서 국제보건의료재단 팀이 들어올 예정이다. 주한인회장으로 작년 12월에 선출된 이후 박 회장은 열심히 지방을 돌았다. 그에 따르면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샤희초르스크, 스미르니흐, 위스토크, 포노나이스크 등을 방문하고 여러 지방 한인회장 선거 회의에도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얼마 전에 선출된 아나와한인회 이원도 신임회장, 마카로브 고영순 회장(전 부회장, 이산가족담당) 등을 소개했다.



주한인회는 민족문화예술 보전·보급, 사할린한인사 알리기, 사할린주 내 민족 간 관계와 조화에 대한 기획으로 주정부의 장려금 지원을 따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여러 지방에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합동공연을 열 예정이며 8월에는 한인문화센터 내에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사진기자의 <귀환>사진전을 열고 그의 사진집 <귀환>을 소개할 계획이다.

1세들을 위한 의료상담실 활동에 대해서 박순옥 회장은 이미 연초에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 관계자와 만났다고 했다. 아직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1세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현재 문화센터 1층은 수리 중이다. 3월 초에 시작한 수리는 4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리는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상태이고 큰 금액이라 현재 2년간 무이자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사실 문화센터 입구계단 수리건은 공사기준조건으로 7월에야 시작할 수 있는데다 또한 거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주향토

박물관에서는 사할린한인들의 전쟁 이후 삶에 대한 상설전을 개최하고, <포베다>기념관에서는 모집, 강제동원 시기 한인의 삶에 대한 전시에 대해 주정부 측과 긍정적으로 의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동포들이 소장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자발적으로 수집해 주길 요청했다.

또 박 회장은 주한인회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알리고 사이트 작성자는 한인들에 관심이 많은 안 일로나가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 내용을 채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글레고르스크와 네벨스크 한글학교 개교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5월 9일 사할린을 방문하는 한국 크루즈 관광객들에 대해서 박 회장은 이들이 한인문화센터를 견학하는 데에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말방송이 제작한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비디오를 제공하고, 문화센터 내에는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새고려신문사 이예식기자의 사진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한인회 측은 문화센터 앞마당에 있는 사할린 한인회생자 위령비와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

피해자 추념비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을 거라 전했다.

4월 말에는 한국 적십자사가 소집한 사할린한인단체 대표자 회의가 또다시 사할린에서 개최된다.

또한 5월 12일 한인문화센터에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코위너)이 주최하는 제6회 국제컨벤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박순옥 회장이 알렸다. 박회장에 따르면 권행자 코위너 러시아(사할린)대표와는 이 문제로 모든 합의를 보았으며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20여개국의 한인여성 약 9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순옥 회장은 정월에 있는 첫 운영위 회의에서 밝힌 한 바와 같이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와 주노인회는 독립 단체로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사할린주한인회에 속하는 부서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한인회 운영위 회의에서 채택한 후 12월에 있는 정례 결산회의에서는 승인해야 한다.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회장은 본 협회는 해마다 주한인회와 공동으로 한국문화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이번에는 경시대회는 4월 28일 열릴 것인데 주제는 "한민족의 열이 담긴 전래동화와 속담"이라고 했다. 여러 지방을 대표하는 학생 지원자가 꽤 많다고 한다. 이번에 이들은 한민족 전래 동화가 담긴 색칠하기 책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은 주정부 지원프로젝트(주최:주한인회) 일환으로 출판된다. 이에 따라 동화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 콩쿠르를 개최하여 우수한 그림을 선정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2018>을 제작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흥지 주한인노인회 회장 겸 주한인회 부회장은 올해도 청년들을 위한 역사캠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재: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깨끗한 금요일" 행사 시작

4월 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정례적으로 "깨끗한 금요일" 행사가 시작되었음을 시행정부 홍보실에서 통보했다. 이 행사는 월간 환경정비활동의 일환으로 4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4월 7일에는 시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나서 주중앙 도시 거리의 주변 정리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거리 환경정비활동에 기여하고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이 "깨끗한 금요일"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가령, 집주변을 미화단장하거나 집 옆의 뜰을 깨끗이 정돈하는 일이다. 이에 필요한 도구는 시행기관이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거주지역의 해당 기관에 방문문의를 요한다.

추가로 4월 22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도시적 토요일"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и «Чистые пятницы»

7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ись традиционные «Чистые пятницы», информиру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Он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в рамках месячника по санитарной очистке. 7

апреля порядок на улиц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водили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бюдже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еравнодушные горожане, желающие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наведение порядка на ул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могу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Чистых пятниц». К примеру, облагородить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палисадники у своих домов.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инвентарем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обеспечат управля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этого людя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Добавим, что общегородской субботник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2 апреля.

사할린인형극단, 타타르스탄으로 순회공연차 출발

사할린 인형극단은 교환순회공연차 카잔으로 떠났다.

도서지역 극장의 홍보실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사할린주 정부 간 체결된 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외에도 동 협정서에는 상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함께 문화교류를 포함한 규정의 한 부분으로서 사할린 인형극단의 이번 순회공연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파를 타고 날았다>와 <로마쉬카여, 그대를 사랑해요>란 인형극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중 첫 인형극은 사할린의 여류시인 엘레나 나마코노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미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극일 뿐만 아니라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열린 극동 지역 간 인형극축제인 "아빠 카를로"에서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마쉬카여, 그대를 사랑해요>는 세르게이 코즐로브의 동화를 바탕으로 만든 인형극으로 지혜가 담겨있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아마 그래서 성인들과 아동들이 이 연극을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형극장의 예술감독이자 사할린주 공훈문화예술인인 안토니나 도브로부요바가 순회공연 내용에 대해 얘기했다.

타타르스탄에서는 연극 공연과 타타르스탄 전통민족요리인 <착-착>으로 사할린 인형극단 관계자들을 친절히 맞이했다. 이미 4월 7일에는 <애기야> 인형극장의 대공연장 무대에서 <우리는 소파를 타고 날았다> 공연이 있었다.

한편 사할린은 타타르스탄 <애기야>인형극단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로 한창이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인형극장에서는 타타르스탄 인형극장의 최근 2년간의 가장 재미있었던 인형극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세 딸>, <빨간 염소가 온다>를 상연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отправился на гастроли в Татарстан

Т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в рамках обменных гастролей вылетела в Казань.

Как поясн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стровного театра, поездка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Татарстан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им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частью которых станут выступл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в Татарстане.

(8면에 계속)

# <함께 테러를 반대하자!>

##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희생자 추모집회 개최

지난 8일(토) 사할린주정부 앞에서 시민과 정부·사회단체 관계자, 종교인 등 약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반테러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 참가자 다수는 주내에서의 인의 폭행과 테러리즘 발생을 단호히 비난하는 학생과 대학생들이 플래카드를 손에 들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도 이 집회에 참가했다.



<함께 테러를 반대하자!>란 구호로 시민집회 참가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여 1분간 묵도하고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렀다. 우선 위대한 조국전쟁 참전용사인 미하일 야코블레브는 집회 참가자들 앞에 서서 "오늘 집회는 얼마 전에 영웅도시에서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비극과 관련된 집회다."라며 "온 사회는 반드시 이런 죄악의 행위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 발생한 비극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한다. 이런 참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테러리즘의 발생은 다양하다. 이에 대해 법률적, 국민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테러리즘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

고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대주교 찰훈이 말했다.

"선량한 사람들을 겨냥해 폭파물로 살해한 범죄자들의 행위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테러리즘은 21세기 현실의 역병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사회의 불화와 증오, 그리고 오해의 씨를 뿌리는 역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라고 극동 사할린주 이슬람교 이맘 드자말 하즈라트 가리폴린은 단언했다.

"우리 사할린 청년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참혹한 테러발생으로 사망한 분들의 친척·친지들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각 개인의 하루가 미소로, 희망으로,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으로 시작되고 젊은이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전망 속에 가정을 꾸리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보호와 배려로 여생을 보내고, 우리의 생활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그저 살고 싶다."라고 사할린국립대학생 다리아 배주벤코가 연설했다.

집회에서 대학생들은 <살다>라는 노래를 불렀다. 집회 참가자들은 봉사대원들이 미리 나누어준 가사를 따라 합창했다.

같은 날에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외 홈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코르사코프, 우글레고르스크, 쿠릴스크 등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피해자 추모·반테러 집회가 개최되었다.

(취재: 이에식기자)

# 사.할.린.

##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 일본 가는 배 안에서 다짐한 '귀환운동'

이희팔 선생이 일본에서 펼친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다. 바로 박노학(1988년 사망) 선생이다. 둘의 인연은 사할린 탄광촌에서 시작됐다. 스무 살의 푸릇한 청년 이희팔이 브이코프에 도착한 것이 1943년 6월 초순.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노학이란 청년이 들어왔고, 둘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같은 숙소에 머물며 친해졌다.

그 후 전쟁 말기에 현지 징용자가 되어 두 사람 모두 사할린에 발이 묶여 있던 1946년. 박노학 씨가 "밀항이라도 해서 사할린을 빠져 나갈 길을 찾아보자"며 먼저 항구도시인 코르사코프로 떠나고, 그 이후 이희팔 씨도 곧바로 박노학 씨를 따라갔다. 그리고 같은 한인인 이문택 씨가 합류하면서, 셋은 결혼 전까지 코르사코프에서 함께 생활했다. 생계를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수로 일하던 그 시절, 그들에게는 유일한 낙이 NHK(일본의 공영방송국) 방송을 듣는 것이었다. 정보통이 꽉 막힌 타국에서 무슨 소식이든 하나 건지려면 일본 방송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희팔 씨는 1950년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의 결과로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을 비롯하여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 남자들까지 대거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이희팔 씨(박노학 씨도 포함) 역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

1957년 12월에 홈스크시 항구를 떠나 1958년 1월에 일본 마이즈루 항구에 도착한 이희팔, 박노학 두 사람은, 각각 일본인 부인의 고향으로 가려던 원래 계획을 뒤엎고 도쿄의 아다치구 오야다촌에 정착했다. 코르사코프에서 알고 지내다 먼저 일본에 입국한 뒤 두 사람을 마중 나온 심계섭 씨가, "동경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조선으로 귀환운동을 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만큼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는 강했고, 열망은 뜨거웠다. 이에 대해 이희팔 선생은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사할린을 떠날 때 다른 한인들이 역까지 배웅 나와서 울고 소리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가까우니 돌아가자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여러 소식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부럽다'고 했어요. 그때 다짐했지요. 저들(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_ 「사할린에 남겨진 4만3천 명의 동포」 기사에서 인용.

### 일본에서 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이희팔, 박노학 두 사람은 홈스크 항구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귀환선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일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귀환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박씨는 귀환자 기숙사에 도착한 지 일주일만인 1월 20일, 한국 대표부의 최규하 참사관을 만나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2주 후인 2월 6일에는 박노학, 이희팔, 심계섭 3인을 비롯한 5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화태억류 귀환자 동맹본부>(이후 '억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하여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로 명칭 변경)를 결성했다.

이희팔 선생에 따르면, 모임 결성 후 초기에는 아리가와 요시오라는 일본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만주에서 들어온 그가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방법이며 청원서 쓰는 법 등을 가르쳐주었다는 것. 또한 그는 귀환자 기숙사가 있던 아다치구 지역의 국회의원 시마가미 겐지로 사회당 의원과 한인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그해 2월에 열린 국회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가 거론되도록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당시의 귀환운동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 한인의 지위가 취약했다는 말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한인들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만 겨우 허용했지, 그 이상의 관심도 호의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 당국에게 한인들은 단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자 기피 대상일 뿐이어서, 오히려 대놓고 노골적인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자국민을 사할린에서 본토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펴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원래 일본의 호적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은 자동적으로 남편의 호적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1957년 귀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일본인 부인과 자녀에게만 일본 국적을 인정했을 뿐, 정작 그들의 가장인 한인에게는 보호 받을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으로 들어올 때 드는 비용도 한인들은 스스로 부담하게 했다. 박노학 씨는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 단지 한인이라는 이유로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일본 사회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귀환운동'까지 벌인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고달팠을 것인가. (계속)

# <고르니 워스두흐>종합스포츠 관광단지 개발

## 규모큰 대상건설공사 계획대로 진척

사할린주 중앙도시의 두 곳 서남쪽 바이에슬론스키 종합단지과 수상스포츠단지 건설공사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시찰한 가운데 <고르니 워스두흐>종합스포츠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지금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은 차질없이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전에 계획된 예정표대로 작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요즈음 <크리스탈>스포츠회관 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바이에슬론 스키종합단지는 금년 가을에 완공될 전망이다. 종합단지 내에는 사격선수들을 위한 30개의 표적이 설치되고 경기장도 마련되며 일반스키노선은 2km, 바이에슬론 스키의 노선은 약 4km 연장된다. 종합단지 내에는 선수들이 스키경기에 나서기 전에 훈련하는 그라운드와 스키상태 테스트 장소도 포함되어 있다. 총공사 작업량은 37%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필요한 기초토목공사 작업도

완료되고 노선의 전신주는 약 250개가 세워졌으며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대규모의 목적물들을 건설하면서 근처에 위치한 썬터를 보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에게 이 썬터는 특별할 것이다. 때문에 당신들도 이 썬터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지사는 토목공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러시아 올림픽 종합팀과 <아시아의 어린이>국제경기에 참가할 어린선수들도 사할린 바이에슬론스키종합단지에서 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르니 워스두흐>스포츠종합단지는 사할린주의 관광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 측은 이미 소치에서 체험한 시스템을 토대로 사할린에 적합한 관광단지를 구상했다고 한다.

# "타만의 카자족" 축제에 오하의 학생들이 사할린을 대표

오하 학생들이 사할린을 대표하여 러시아 전국아동축제 "타만의 카자족"에 출전하게 된다. 지역교육부의 보도에 따르면 4월 8일 주중앙도시에서는 지역별 "카자족"축제의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을 위한 성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축하행사는 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수상자 명단에 오른 부문별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에게 주교육부는 우승컵과 상장을 수여했다. 대상은 오하의 아동창작회관 팀이 차지했고, 2위는 주중앙도시 제8호중학교, 3위는 홈스크 9호중학교가 차지했다. 별도로 팀 지도자들과 부문별 우승자들에게도 시상했다. 축제는 성대한 종합공연으로 말미를 장식했다.

축제는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베레즈냐키의 <유빌레이너> 시외 아동건강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카자족은 끊기지 않는다", "우리의 여수호신", "소년 장수", "전통과 현대" 등의 부문별 콩쿠르에서 경쟁했다.

러시아 전국 결승전은 8월 23 ~ 29일간 크라스노다르의 타만 카자족촌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전 러시아연방지역의 가장 뛰어난 카자족소년단들이 참가하게 된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Сегодня мы с вами рассмотрим одно из важнейших аспектов чосо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сущность его структуры, то есть на какие сословия это общество делилось и какие между ними были различия. И начнем мы, конечно, с сословия янбанов, то есть дворян.

Конфуцианство в его классическом, изначальном, варианте враждебно относилось к самой идее наследственных привилегий. Его идеалом является меритократия (власть достойных), то есть система, при которой положение человека в обществе зависит от ег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личных качеств. О наследственной аристократии и о наследственных сословиях в идеальном конфуциа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 не могло быть и речи. Однако в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декларативну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конфуцианству, сложилось строгое сословное общество, то есть такое, в котором человек по рождению принадлежал к одной из групп с четко определенными правами 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и зачастую переход из одной группы в другую был априори невозможен.

Система эта сложилась не сразу и не получила должн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закрепления (как, например, в Европе), более того официально она замалчивалась, как не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офици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и. Права и обязанности сословий не были прописаны в законах, а действовали по нормам обычного, бытового, права («как повелось встарь»).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Корея повторяла многие черты, присущие феода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ам, и в части 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тоже.

Даже сами корейцы периода Чосон не были точно уверены, сколько именно сословий у них есть, расходятс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и современные ученые. Стои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нельзя оценивать и описывать сословия Чосон как одномоментное событие – в XV в. система сословий только формировалась, а в XVIII–XIX вв. стала приходить в упадок.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ля этих периодов и обстановка была разной. Мы можем лишь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сказать – в Корее XVI–XVIII вв. было от семи до десяти сословных групп – янбаны (дворяне, высшая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ая знать); чунъины (среднее сословие; сори, хянри, тхогван (потомственное мелкое чиновничество), санмин (торговцы), конмин (ремесленники), нонмин (свободные крестьяне), ноб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частные крепостные), а также чхонмин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зираемых профессий, своего рода неприкасаемые – куртизанки, мясники и т.д.

О примерном соотношении сословий в Корее конца XVII в. (а настоящую статистику, как вы понимаете, довольно трудно составит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источников)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некоторым документам сохранившим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района Тэгу в 1690 г. Тогда янбаны составляли 7,5 %, простолюдины (свободные крестьяне, торговцы и ремесленники) – 49,5 %, частнозависимые крестьяне – 41,4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репостные – 1,6 %. Чунъины в этом списке отсутствуют, так как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они жили в Сеуле и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Там же были сосредоточен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репостные, которые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в прислугах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Янбаны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высший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й слой феодальной Кореи, своего рода дворянство. Само слово «янбан» по значению составляющих его иероглифов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как «две част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нбаны четко делились на две группы – военные и гражданские. Эти две группы несколько различались по своему положению. Военные янбаны по традиции не могли занимать выс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стов. Продвижение их по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ограничивалось 6-м рангом, более высокие ранги военным не присваивались. В этом ограничении заметно усилилась дискриминация военны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ериодом Корё, где они могли подниматься до 3-го ранга, и с Силла, где ограничений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вовсе. Впрочем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янбаны могли переходить на гражданскую службу и в таком качестве достигать выс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стов, но происходило это очень редко.

Созд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предполагали, что все янбаны должны находить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и что привилегии им будут даваться именно как чиновникам и военным. Однако в более поздние времена правило это не соблюдалось и их привилегии приобрели наслед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Лишь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более трех поколений одной семьи не служи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ппарате, семья официально считалась потерявшей янбанское достоинство.

Только янбанам была открыта дорога к занятию любых важ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остов, хотя и среди янбанов больш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мели выходцы из более знатных фамилий. Янбаны также имели ряд привилегий,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связан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чиновничьей службой. В частности, они были неподсудны обычному суду, их дела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 специальном судебном институте. Примерно с XVII в. янбаны стали носить особую одежду и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которые подчеркивали их особое положение. При встрече с янбаном требовалось оказывать ему знаки внимания – едущий верхом простолюдin обязан был спешиться, идущий пешком – низко поклониться. Сидеть и курить в присутствии янбана простолюдinам запрещалось. В суде янбаны могли давать показания стоя, тогда как простолюдinы – стоя на коленях. По традиции считалось, что существуют лишь два вида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стойные янбан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лужба и земледели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ю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 РООСК: Работы сделано немало

8 апре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рассказала о работе в 1-ом квартале 2017 г. По ее словам,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немалая. Во-первых, проведен новогодний утренник для детей. В январе РООСК совместно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ИН занималась задачей «Единого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я», который предназначен в подаро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го поколения.

14 января на бесплат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и леч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тправилась первая группа (22чел.)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оем из них были сделаны сложные оп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уд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Фондом РК о том, что следующую группу сахалинцев примут уже в мае (по плану в сентябре).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сопровождать член семьи, ведь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разные ситуации. К примеру,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решить вопрос об операции. Отправка на лечение и диагностику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огласно составленному списку. 19 апреля состоится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 выезду на лечение и диагностику 2-ой групп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момента избрания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Сун Ок не раз выезжала в районы, встречалась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Поводом были выборы председателей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раздача «Единого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я» и т.д.

РООСК выиграла гра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прививание знан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гармонизац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островном крае. В рамках гранта пройдут концерты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 и презентация альбома «Возвращение»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Ли Е Сика, конкурс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по теме народных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работы-победители станут основой «Единого на свете календаря 2018») и т.д.

В начале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начался ремонт.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работы требуют огром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 пока 1-ый этаж.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ончить в конце апреля. Ремонт идет на спонсорски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Был взят также беспроцентный кредит на два года.

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уд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об экспозиции п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а также о создании экспозиции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Темой станет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В конце апрел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едут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Здесь ежегодное совещани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щественники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посещения Родины, репатриации и т.д.

Пак Сун Ок выразила также надежду, чт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кабинет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на 2018 год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С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еще пока не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разговор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онсульства Японии уже состоялся.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также озвучила, что 9 мая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туристов круизного судн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12 мая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ОВИНЕР). Было сообщено, что на конференцию съедутся около 100 женщин из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мир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ления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а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 проведении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лагеря и т.д.

Виктория Бя.

## Вопросы лингвистики,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и обсудили студенты

На этой неделе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начались XIV Весенние научные чте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ервый день, 12 апреля, выступали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ограм-

м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секции: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лингвистики и лингводидактики» и «Культура и тради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и». Во второй день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студенты, обучающие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связанным с китайским языком. Здесь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только одна секция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лингвистики и лингводидактики».

В этом году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не только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о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институт, и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обучают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программе академической мобильности. Свои работы они представляли, как на русском, так и на родных языках.

Для студентов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это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репетиционным перед защит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создавалась от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до года. Так, он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свои недочеты и исправить их, пок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ценивали работы выступающих модераторы и сами студенты, заполнившие ведомости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выполнения и защиты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Такой вид оценки позволяет студентам относиться к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работам более ответственно. Самые активные молод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стеснялись задавать свои вопросы, получили призы.

##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аром «Сэволь» перемещён на сушу

9 апреля паром «Сэволь», затонувший три года назад в Жёлтом море и поднятый на поверхность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перегружен с полупогружной плавучей платформы на суш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доставка парома в порт Мокпхо завершена в 17:30 в воскресенье. Для перемещения корпуса весом 17 тыс. тонн с платформы на причал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600 модульных транспортёров. Команда спасателей подвела их под корпус парома и скорректировала положение полупогружного судна, на котором он перевозился, чтобы совместить высоту плавучей платформы с высотой причала. Корпус парома планируется очистить от ила и песка, а затем начать поиски тел девят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 Опрос KBS-Ёнхап: Потенциальные избиратели отдадут предпочтение Ан Чхоль Су

Ровно за месяц до назначенных на 9 мая досрочны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РК кандидат на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т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опередил по уровню поддержк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по заказу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KBS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Ёнхап,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на выборах с участием пяти кандидатов Ан Чхоль Су поддержали бы 36,8% избирателей, а Мун Чжэ Ина – 32,7%. Остальные кандидаты существенно отстают от лидеров. За Хон Чжун Пхё от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бы 6,5%, за Сим Сан Чжон от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2,8%, за Ю Син Мина от партии Парын – лишь 1,5%.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бы в выборах участвовали лишь два кандидата, Ан Чхоль Су поддержали бы 49,4% избирателей, а Мун Чжэ Ина – 36,2%. За месяц, прошедший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предыдущего опроса по заказу KBS и Ёнхап, рейтинг Ан Чхоль Су повысился на 17,1%, а Мун Чжэ Ин потерял за это время 9,5%.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8-9 апреля по телефону среди 2.011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К.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плюс-минус 2,2%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 Прокуратура проводит четвёртый допрос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Прокуроры, расследующие коррупционный скандал, в который вовлечены экс-президент РК Пак Кын Хе и её близкая подруга Чхве Сун Силь, в четвёртый раз допрашивают экс-президента. Допрос начался в 9 часов утр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помещении Сеульского центр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где с момента ареста 31 марта содержится Пак Кын Хе. Ранее экс-президента допрашивали 4,6 и 8 апреля.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опросов не сообщается. Экс-президента обвиняют во взяточничеств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властью, сговоре с целью вымогательства и разглаш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кретов. До окончания следствия её могут допросить ещё 1-2 раза. Если Пак Кын Хе будет признана виновной, ей грозит тюремный срок от 10 до 45 лет.

## В 2015 году граждане РК потратили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зарубежным поездкам 18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2015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уристы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к зарубежным поездкам потратили 18 млрд 126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опубликовав р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а ситуации в области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В упомянутые затраты входят расход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иабилетов и товаров в беспрошленных магазинах. Если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ключить в объём затрат на внутренний туризм, то его общий объём составит 63 млрд 922 млн долларов. Раньше затраты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к зарубежным поездкам не включали в общий объём затрат при внутреннем туризме.

## Женские футбольные сборные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ыграли вничью

В матче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Кубка Азии-2018 женские футбольные сборные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ыграли вничью – 1:1. Матч состоялся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в Пхеньяне, на стадионе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борная играет в группе В вместе с футболистками из СК, Узбекистана, Гонконга и Индии. С двумя победами и одной ничьёй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анда с 7 очками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в группе.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футболистки из СК, у которых 10 очков. Право выступить в Иордании в финальной части Кубка Азии получит только одна команда из каждой группы, занявшая первое место. (RKI)

## Сеул и Пекин заявили о желани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ойну в Корее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спекуляции о возможном военном ударе СШ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али переключаться из разряда "почти невероятных" в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ы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ли все больше беспокоиться, законно опасаясь, что КНДР на атаку против себя вполне может ответить не контрударом по находящимся за океаном Соединённым Штатам, а по тому же Сеулу, расположенному всего лишь в 40 км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вынужден был делать спе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извав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не поддаваться на распространявшиеся в соцсетях слухи о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м на 27 апреля военном ударе США по КНДР".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получи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от наших союзников из Вашингтона, что США,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отношениях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с Сеулом, сначала обсудят и согласуют с нами все возможные военные шаги против КНДР", - заявил чиновник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Его поддерж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Юга Ли Док Хэн, который заверил, что проблеме с КНДР "можно будет решить мирным путем и на основе диалога".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ст след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сделае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ойну", предупредив США, КНР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ситуацию в своих интересах, пользуясь досрочной отставкой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Следует все же признать, что оптимиз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в стиле "США без нашего согласия не нанесут удар по Пхеньяну" в Сеуле разделяют далеко не все, опасаясь, что сейчас вопрос о военном ударе по КНДР решается без участия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лидеров США и Китая. Южная Корея до сих пор выступала и продолжает выступать за ужесточение пози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но все же отнюдь не горит желанием оказаться в эпицентре войны с возможным примен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этой связ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ют содержани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сегодня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между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Си Цзиньпином, которые реши-

ли снова пообщаться хотя встречались буквально пять дней назад в США.

Впрочем,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скучным сообщениям официальных СМИ Китая, Пекин тож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он не изменил свою позицию и предпочитает сохранить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сообщил китайский телеканал CCTV "Си Цзиньпи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екин выступа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а мирное решение всех проблем"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 Соединёнными Штатами".

Заявление официального МИД КНР было выдержано в том же тоне. Косвенно дав понять, что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между двумя лидерами планировался заранее, а не является реакцией на какую-то экстренную ситуац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КНР Лу Кан подчеркнул: "В нашей позиции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лось... Мы намерены решать все проблемы, включая ядерный вопрос КНДР, поддержание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ерез переговоры и диалог. И это в США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 отметил китайский диплома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ак признают в Китае, они вполне могут пойти на наращивание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хотя и без каких-либо военных методов. Речь ид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ычагах. "США конечно же используют в своих интересах действия КНДР, чтобы нагнета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и сохранять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регионе. Но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и другое: Пхеньян часто дает слишком серьезные поводы для "американских ястребов" и тут нам надо что-то сделать", - отметила "РГ" сотрудница одного из китайских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ов на условии анонимности. Она признала, что в КНР давно уже сильны голоса тех, кто выступает за то, чтобы "осадить Ким Чен Ына", который не считается с закон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Кита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еуле же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посл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 Трампом Си Цзиньпин сразу же набрал номер Ким Чен Ына, чтобы сказать: "Если будет еще одна серьезная провокация типа запуска крупных ракет или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то мы вас перед США защищать не будем. Войны мы не хотим, но бесконечно вас выгораживать не буде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В парламент КНДР вернули Комит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В Пхеньяне во вторник, 11 апреля, прошла 5-я сессия 13-го созыв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в работе которо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Как заяв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и приняты решения по пяти основным пунктам, включая план пятилет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бюджет, 12-летнее обяза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оз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Пожалуй, главной новостью этой встречи стало создание в структуре ВНС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Тут можно говори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вернулся к тому, что существовало еще при его деде Ким Ир Сене. Аналогичный комитет был создан в ВНС КНДР в 1989 году, но просуществовал лишь 10 лет и был ликвидирован в сентябре 1998-го

при Ким Чен Ире.

Председателем нов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был назначе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Ли Су Ён,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вс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состав новой структуры вошли такж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КНДР, которые отвечают за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международную торговлю, отношения с США, Южной Кореей,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и иные сферы.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ослужило поводом для различных комментарие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о мнению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НИИ им. короля Сечжона Чон Сон Чжан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хеньян теперь будет придавать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ытаясь прор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изоляцию.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в мае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КНДР озвучит какие-то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иалога с Сеулом, Токио и Вашингтоном.

С Чоном согласился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Чан Ён Сок. "Это показывает желание КНДР улучш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спользуя для этого различ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ако трудно пока сказать, будет ли это иметь какой-либо заметный эффект", - отметил экспер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также отчиталось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и подвело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план по госдоходам был выполнен на 102,1 процента, а расходы составили 99,9 процента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На 2017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о увеличение доходов на 3,1 процента и расходов - на 5,4. Впрочем, как и прежде, КНДР озвучила только относительные цифры, не назвав никаких абсолют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Источник: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МИД РК впервые в мире начнёт выдачу паспортов, напечатанных шрифтом Брайля

С 20 апреля МИД РК начнёт выдачу паспортов, напечатанных шрифтом Брайля. Их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в 240 паспортных орган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и в 175 зарубежных диппредстави-

тельствах. Такие паспорта выдадут людям с нарушениями зрения первой, второй и третьей степени. На внутренней стороне обложки документа сделана прозрачная наклейка с номером паспорта, да-

той его выдачи и датой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товится к введению паспортов, напечатанных шрифтом Брайля, следуя парламентской инициативе по частичному пересмотру паспортного

закона. РК является первой страной в мире, выдающей паспорта, напечатанные шрифтом Брайля, что повысит уровень удобств для слабовидящих в зарубежных поездках.

(KBS World)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коло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вышли на акцию памяти жертв взрыва в метрополитен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8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брались горожане и гости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уховенства. Акция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олодежи –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держали в руках плакаты,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ющие любые проявления насилия и терроризма в стран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и глава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гражданской акции «Вместе против террора!» почтил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амять мирных граждан,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ак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х имена назвали со сцены.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отслужил заупокойную литию.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лигиозных конфессий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 Сегодняшний митинг посвящен трагедии, произошедшей в городе-герое, где недавно погибло множество невинных людей. Я искренне соболезную пострадавшим и семьям погибшим, - первым взял слово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ихаил Яковлев. - Все общество обяза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этому злодеянию. Мы должны ежедневно помнить о том, что произошл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предавать это забвению.

- Явление терроризма многогранно и ему можно давать оценку юридическую и гражданскую, а можно – богословскую.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терроризм является противоборством высшим силам, - отметил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 Нет никакого оправдания действиям преступников, взорвавших мирных жителей. Терроризм – это настоящая чума 21 века, мы призываем всех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плотиться и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этой заразы, которая сеет рознь, вражду и недопонимание в обществе,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ухо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усульм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м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жамаль хазрат Гарифуллин.

- Мы –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выражаем глубочайш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гибших и пострадав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страшного терак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Так хочется, чтобы день каждого из нас начинался с улыбки, с мечты, с голубого неба и яркого солнца. Чтобы молодые люди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гли смотреть в свое будущее, строить семьи. Чтобы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жило вниманием и заботой. Чтобы в нашей жизни не было страха. Так хочется просто жить, - сказала Дарья Беззубенко,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воеобразным гимном акции памяти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а песня «Жить», исполненная студентами. Листовки с ее словами собравшимся раздавали волонтеры.

Помим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амяти жертв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в метр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 этот день состоялись и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к акции примкнули Холмский, Долинский, Анив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 Централизация закупок в медицине сэкономила миллионы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За пять последних месяцев экономия составила 11,6 млн. рублей.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централизации закупок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нужд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б этом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Пак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и председател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е Щербине.

- С нового год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здан отдел по закупкам. Все заявки от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роходили 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него, и без визы этого отдела ни одна закупка не пройдет. Это позволяет устанавливать общ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закупаемым видам товаров, работ и услуг. До централизации мы нередко наблюдали, как разные учреждения закупали один и тот же товар, но по разной цене. Дошло до того, что цена на одни и те же бахилы могла отличаться на 30 %,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Пак.

- Опы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централизации закупок оказался очень полезным. Необходимо и далее развивать данную практику.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ее оценили и поставщики товаров для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ни увидели открытость рынка. Уже в этом месяце по данной схеме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и объекты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 добавила Елена Иванова, министр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рассмотренный на совещании, - организация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льготной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ства минздрав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льготной категории населения в области внедрена программа по

ведению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реестра граждан, выписке рецептов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учету закупленных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в аптеч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эффективному контролю действий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льготного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финансов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котор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нита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реди них - оптово-торговое предприятие «Фармация», о работе которого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Инна Грибенева.

- Наше предприятие обеспечивает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пте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 медикаментами. Мы также оказываем услуги по получению, хранению и отпуску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по федера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медикаментами отдель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По предлож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оведена реорганизация предприятий аптечной сети путем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Фармаци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оздоровить экономику убыточных аптек и обеспечить сохра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птечной сети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 12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аптекам,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м предприятию, присвоен статус «социальная».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мы наблюдаем ежегодный рост выручк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делать отчисления в областную бюджет. В 2017 году предприятие принесет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казну почти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отметила Инна Грибенева.

-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предприятию «Фармация» за плодотворный труд. И обращаюсь ко всем органа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 кого в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ходятся та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нимательно пересмотреть 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сходования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 задача номер один д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районных властей. Нам нужно, чтобы деньги, которые мы выделяем на развитие учреждений,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а не лежали мертвым грузом. Нужно знать: куда и как тратя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селение региона должно видеть качество оказываемых услуг. Если деньги не работают, значит будем их изымать, - подчеркнула, подводя итоги совещания, Вера Щербина.

##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7» готовятся к финальному поединку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провел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для педагогов-конкурсантов.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накануне начал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нелегкий, благородный и прекрасный труд!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еред школой ставятся всё более сложные и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Меняется содержа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недряются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ругими становятся и сами ученики. Я надеюсь,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откроет нам новые имена педагогов-новаторов, мы ждем интересных идей, творческих находок, понимания того, как остро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еняется и развивается, - подчеркну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Конкурс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учителя пройд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в 27-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в борьбу вступят 24 педагога (7 из которых учителя сельских школ) из 10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Это учителя математики,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есть воспитатели, учителя-логопеды, педагоги-психолог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технологии 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 начал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учителей поздравил советник по связям с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Валерий Крипа, данная компания уже более 12 лет является генеральным спонсором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Он пожелал конкурсантам удач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в конкурсе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мужчин-педагогов (6 человек), работающих не только в школах, но и в детском саду.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учреждена новая номинация -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ебют»,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между молодыми педагогами.

Завершая встречу с финалистами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вручил каждому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с символик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состоялось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2017».

Со словам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 педагогам-конкурсантам обратилась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 Дорогие коллеги, искренне рада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открыти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 2017».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аздник, но и еще одна возможность учиться: у коллег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у наших

учеников. Я уверена, что в ходе конкурсных испытаний каждый из вас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се свои лучш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ачества. Желаю вам новых открытий, вдохновения, творчества и победы, - отметила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Уже завтра островные педагоги приступят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остязанию. Впереди их ждет - открытый урок, мастер-класс, 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ект 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совет. 18 апреля будет названо имя лучшего учителя 2017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Учи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

##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вырабатывают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лосося в условиях ожидаемых слабых подходов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начинать промысел в том или ином район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заполнения нерестилищ.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игнал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ам дадут ученые после обследования соседних рек.

- То есть, общей для всей области даты начала промысла не будет,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Быстров. - Другого выхода у нас нет. По данным науки уловы «красной рыбы» у нас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более чем скромными.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Сахалина они составят всего 1200 тонн, в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дзоне - 20 тысяч тонн,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й – 6,5 тысячи тонн. Еще 1,5 тысячи тонн -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отраслевой науки промысел в этом году вообще закрыт. Все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стадо горбуши находится в депрессивном состоянии и для его сохран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имать кардинальные меры.

Складывающаяся ситуация ставит перед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Главный из них – чем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прежде 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почт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добычу и переработку лосося?

- Мы считаем, что выходом может стать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на многовидовый лов в рамках промысла в шестимильной зоне, - сказал Игорь Быстров. - Это понимают и сам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был упрощен доступ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 водным биологическим ресурсам шестимильной прибрежной зоны, в него включились только четыре компании. В этом году их уже 20. Эти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ут вести у берег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добычу минтая, трески, наваги, камбалы, и других даров моря. Это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снабж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вежей рыбой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ь хотя бы частичную загрузку добывающих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мощностей, которые не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из-за слабых подходов лосося. Думаю,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оличество компаний, выходящих на промысел в шестимильную зону, будет быстро раст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мы готовим измене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освоение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е введенных в состав общих допустимых уловов, которые чаще всего не осваиваются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Речь идет о кальмарах, мойве, бычках, сельди иваси,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ах, которые зачастую просто выбрасываются на берег.

Также в преддверии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вопрос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мысла «красной рыб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 юго-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где лов запрещен.

- Эту тему мы сейчас прорабатываем с учеными и структурами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Еще одна сложнейшая проблема - организация спортивно-любительского лова лососевых. По действующим правилам, его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пределах существующих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ов. Однако сегодня такие места, гд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законно поймать горбушу или кету, имеются далеко не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Мы обозначили проблему в Росрыболовстве. И сейчас совместно с этой федеральной структурой ищем решение,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гражданам ловить лососевых.

Сейчас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путине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точки по торговле дарами моря на ярмарках и рынках,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крыты на зиму. Их подключают к водо- 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ю,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облюдение санитарных правил.

-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у нас проживает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а самые крупные уловы горбуши ожидаются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 обозначил задачу Игорь Быстров. - Поэтому м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быструю доставку свежей и охлажденной красной ры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 важное место в рационе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 공모

## 4월1일부터 두달간 성인부문과 청소년 부문 공모 공모전 통해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창작활동 장려 및 공감대 형성 기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공모전을 시행한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부문

글짓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성인은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 청소년은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역대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0편의 작품과 한글학교 2개교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8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공모전을 계기로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한글 문학 창작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응모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okf.or.kr) 및 코리아넷(www.korea.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 【우리말로 깨닫다】

## 표준어의 비밀

표준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다. 말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표준을 정해놓고 다른 말은 틀리다고 하는 것이니 이상할 수밖에 없다. 어떤 말은 표준이고, 어떤 말은 비표준이라는 발상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표준어를 정했을까?

### 표준어와 사투리

일단 표준어는 사투리와 구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로의 말이 잘 안 통할 경우 기준이 되는 말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표준어가 있지만 여전히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도 많다. 서로 다른 사투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두면 서로의 조정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표준어에 속한다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도 많다. 자주 쓰는 어떤 말은 틀리다고 하고, 별로 안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하니 혼동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 예도 많다. 종종 농담으로 국어 시험 문제용으로는 표준어가 매우 유용하다는 말도 한다. 북한에서는 표준어라는 말 대신 문화어라는 말을 한다. 역시 기준을 세워서 통일적인 언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어라는 말도 이상한 표현이다. 문화어가 아니면 비문화어라는 말인데, 정말 그럴까?

### 표준어의 세가지 기준

표준어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서울말이어야 한다. 둘째, 현대 말이어야 한다. 셋째, 교양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어야 한다. 표준어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 그 이유는 셋째 기준인 교양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 때문이다. 교양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은 표준어인가? 우리는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교양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표준어의 모호함이 있다.

서울말이어야 한다는 점도 논란거리이다. 서울에서 산다고 모두 표준어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서울에는 1,0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표준어 기준에 부합하나?



▲ 조현웅(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서울말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야 한다. 학자들이 지역 방언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타 지역의 이주 경험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다른 지역의 언어가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출신지도 중요하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가족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리라. 따라서 서울말이라 함은 본인은 물론 부모까지 서울에서 태어났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할 때는 삼대가 서울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현대 말이라는 점도 논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현대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삼대가 살았고, 교양이 있다면 모두 표준어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실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현대'라는 말의 비밀이 있다. 표준어는 보수적인 개념이다. 표준어는 말은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젊은이의 말은 아니다. 청소년의 말은 더더욱 아니다. 보통은 60세 이상이 쓰는 말이 현대 말의 기준이 된다. 엄밀하게 연령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주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 표준어는 누가 쓰는 말일까?

표준어는 서울에서 삼대쯤 산 60세 정도인 사람이 교양을 갖추어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된다. 그냥 서울, 현대, 교양이 아니다. 표준어는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사투리를 쓰고, 은어와 유행어를 쓰고, 속어를 쓴다. 하지만 표준어를 사용하되,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늘 고민해야 한다. 다른 것을 비표준이라며 지나치게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말이다.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한국어로 번역된 푸시킨의 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전호의 계속)

Такой анализ предполагает обращение к контекст, ситуации, фоновым знаниям собеседников, владению правилами этикета, к информации, передаваемой невербальными параязыко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жестами, мимикой и т.п.)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предназначенность предложения, выражаемая модальными слов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ре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функции, выполняемой конкретным высказыванием.

Так, предложение Холодно! может нести две смысловые нагрузки, выбор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от конкретной ситуации. в одной это может быть констатацией факта, а в другой просьба или приказ закрыть дверь или окно.

Так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ереносный (прагматического) содержания предложения, называются "косвенными"(간접 발화) в отличие от "прямых"(직접 발화)

Элементы речи (이야기 요소)

Речь -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аяся форма общения людей посредством языковых конструкций, создаваемых на основе определенных правил.

Процесс речи предполагает,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формулирование мыслей языковыми (рече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осприятие языковых конструкций и их понима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чь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сих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форму существова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языка.

Речь - существенный элемент челове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зволяющий человеку познавать окружающий мир, переда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и опыт другим людям, аккумулировать их для передачи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Для реч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редством выражения мыслей, помимо воспроизводящего и воспринимающего лица характерно наличие таких факторов, как содержание и ситуация.

###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으)려나 (모르겠다)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и выражени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или ожидания.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в фамильярном стиле речи или при выражении своих мыслей вслух.

Примеры:

- 내일 비가 오려나 모르겠다.
- Не знаю будет ли завтра дождь.
- 그가 벌써 집에 와 있으려나?
- Интересно, а он уже дома? (Не знаю, дома ли он уже)
- 내일은 덜 힘들려나.....
- Интересно, а завтра будет полегче?

(2) -(으)려니 하다 "навверное...", "думать, что..."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определенного факта. Вместо '하다' могу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слова '싶다', '생각하다', '여기다'.

Примеры:

- 내가 그것을 못 하려니 생각했지?
- Ты же думал, что я не смогу это сделать?
-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가 안 오려니 싶다.
- Уже поздно. Наверное он не придет.
- 이제는 일이 잘 되려니 생각합니다.
- Думаю, что теперь все получится.

(3) -(으)런마는 "навверное... а(но)...", "было бы..., но..."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кращенной формы-(으)런만.

Примеры:

한국에 가면 좋았으려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 못했다.

→ Было бы хорошо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но не могу, у меня здесь ещё осталось много дел.

모두들 지금 집에 있으려만는 내일 시험 때문에 혼자 도서관에 남아 있다.

→ Все наверное, сейчас дома, только я один остался в библиотеке из-за завтрашнего экзамена.

같이 식사를 하면 좋았으려만는 시간이 없었다.

→ Было бы хорошо поесть вместе, но нет времени!

(4) -(으)로 말미암아 "благодаря...", "из-за..."

Присоединяясь к имен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му, ставит его в разряд причины последующего действ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Примеры: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многих людей, я смог хорошо завершить большое дело.

양국의 적극적 협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쟁이 해결되었다.

→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двух стран все разногласия были устранены.

강도 사건으로 협력으로 말미암아 경찰들에게 비상 근무령이 내렸다.

→ Из-за разбойных нападений полицейские получили приказ о внесении усиленного режима службы.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Везем «Мы летели на диване» и «Я люблю вас, Ромашка». Первый спектакль создан по мотивам произ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поэтессы Елены Намаконовой. Постановка уже стал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любимых не только у островных зрителей – она произвела фурор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атров кукол «Папа Карло»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Я люблю вас, Ромашка» – спектакль по сказкам Сергея Козлова. Это очень трогательная история, в ней много мудрости. Может быть, поэтому е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мотрят и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 рассказала о гастрольном репертуаре худрук театра кукол,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ина Добролюбова.

В Татарстане сахалинцев встретили очень тепло – театр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и национальным угощением чак-чак. Уже 7 апреля на сцене большого зала театра кукол «Экият»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показ спектакля «Мы летели на диване».

А на Сахалине готовятся к приему театра «Экият». С 14 по 16 апреля в островн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зрители увидят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постановки последних двух сезонов татарского театра. Гости привезут спектакли «Три дочери» и «Идет Коза рогатая».

## 유명한 아동오페라 <브룬디바르>, 5월에 сахалин에서 첫 공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체홉센터에서 체코의 작곡가 한스 크라사의 아동 오페라 "브룬디바르"(뒤영벌)의 첫 공연이 열린다. 이 가극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내 아동예술학교, 음악학교 등의 어린이 40여 명이 참가하게 된다. 이들은 벌써 작년에 이 오페라 연습에 돌입하여 몇 달간 소그룹 형태로 모여 각자 자기의 역할을 연구하고 익혀왔다. 4월 5일에는 가수들과 음악가들이 첫 합동예행연습을 하였다. 오페라의 음악부분은 예술지도자 티그란 아흐나자란이 지휘하는 시립실내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하게 된다.

오페라 <브룬디바르>는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2015년에 처음으로 상연되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공연이 되기 전까지 이 가극은 러시아의 4개 주요도시들(블라디카프카즈, 윌고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등)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마리인스키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모스크바의 첫 상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친히 참석하기도 했다.

전 도시의 무대에서 이 가극을 므스티슬라브 펜트콥스키 감독이 연출하였다. 그는 하루 전날 유즈노

сахалин스크에 도착했다.

아동들은 이 가극에 순수 배우로서 공연에 참가하는 것만 아니다. 그들은 30~40년대의 옷차림을 위한 의상제작도 돕고 있다. 의상은 파스텔톤의 회색, 파랑, 초록색 등의 색깔들로 지어진다. 감독의 견해에 따르면 어린 배우들은 이 단계를 통해 그때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느낄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전쟁시기의 어린이로서 자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오페라 창작단은 5월의 주요 명절 이후에 첫 공연을 상연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 В мае сахалинцам покажут знаменитую детскую оперу «Брундиба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цене Чехов-центра состоится премьера детской оперы чеш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Ганса Красы «Брундибар».

–В постановке участвуют более 40 учащихся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и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 работе над оперой они приступили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ети изучали свои партии небольшими группами. 5 апреля певцы и музыканты провели первую совместную репетицию. Музыкальные партии в опере исполнит городско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играна Ахназаряна.

«Брундибар» была переведен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впервые поставлена в 2015 году.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е видели зрители только четырех городов – Владикавказ, Волгогра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Москвы. Причем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ее ставили на сцене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а в Москве на премьер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всех площадках постановку осуществлял режиссер Мстислав Пентковский. Накануне он приех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Эт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перный проект, и он реализован уже в нескольких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ах, – отметил постановщик. –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были города-герои, а сейчас «Брундибар» при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 где законч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И для нас это особое место. Я считаю, что дети, конечно же, везде отличаются, но почти всех их захватывает сюжет, и предисстория, и то особое чувство, с которым эта опера исполняется во всем мире.

Дет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постановке не только как актеры. Они также помогают создавать костюмы 30–40-х годов. Их делают в темных тонах серого, синего и зеленого цветов. По мнению режиссера, уже на этом этапе ребята могут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то время и т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А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могает им на время стать детьми военной эпохи.

Премьеру творческая группа обещает показать после главных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сахалин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 Покупай онлайн



|  |   |   |   |
|--|---|---|---|
|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   |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   |
| <p><b>Издатель:</b><br/>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br/>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br/>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br/>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br/>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br/>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br/><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br/>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br/>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br/>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br/>50 раз в год.<br/>Индекс 53740<br/>Тираж 1300 экз.</p>  |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br/>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